음원제작자 저작권 배분율 확대에도 시큰둥

뉴스 인사이드

디지털음원 수익배분율 10% 확대 불구 매출 많은 스트리밍 배분율은 6대4 유지



디지털음원으로만 수익을 내기 힘든 현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위해 창작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케이팝의 나래를 펴게 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썸머 케이팝 페스티벌'의 싸이 공연 모습. 스포츠동아DB

2월부터 디지털음원의 수익배분 비율이 조정되면서 창작자의 권익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가요제작자들의 아쉬움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실연자인 가수와 작곡·작사자들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작자들은 지금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는데도 왜 더 많은 몫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저작권 배분율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에 따라 2월부터 디지털음원 다운로드상품의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배분율이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된다. 60:40인 현행 제도 아래서 권리자의 몫 60은 다시 제작자 44, 실연자(가수) 6, 작사자와 작곡자 각 5로 재분배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제작자의 몫은 54로 오르는 반면, 나머지는 변함없다. 실연자와 작곡·작사자 등 실제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1곡당 사용료 3.6원,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상품은 1.8원. 가장 비싼 음원은 다운로드 단품 1곡이 360원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이 가격은 2월부터 각각 4.2원, 2.1원, 49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헐값'에 불과하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6:4)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 문제는 스트링 서비스가 전체 음원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 역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음악 생산의 기반을 위해"

제작자들은 여전히 이런 형태로는 음원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한다. 제작자들은 "대중가요의 중흥기였던 1990년대 CD시절엔 제작자가 매출의 70%를 가져갔다"면서 "스트리밍 분배율도 인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몫만 더 챙기겠다는 욕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제작자가 '음악'으로 수익을 내야 가요계 뼈대가 튼튼해지고 장르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사'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는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 제작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을 조성한다. 실제로 웬만한 아이돌은 신인급부터 1000만에 가까운 행사 출연료를 받는다. 음원판매론 기대하기 힘든 금액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음악과 가수의 변별력은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자신만의 음악이 아니라 너도나도 유통사의 빚을 얻어서까지 유행을 따르려 한다. '공장형 음악'이 판치는 상황에서 짜깁기나 흉내 내기가 더 중시된다.

제작자들은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음악에 재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고 말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맹정호 부회장은 3일 "현재 협회 350개 회원사 중 5~10%만 음악매출로 자립하는 상황이다. CD시절엔 음악제작자들, 가수들의 '중산층'이 두터웠지만 음원시대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면서 "한국 음악산업의 현실은 절박하다. 벼랑 끝이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배우 김하균, 16일 노총각 딱지 뗀다

'육룡이 나르샤' 촬영 등 조율후 신혼여행



연기자 김하균(57·사진)이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뗀다.

3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하균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해군호텔 W웨딩홀에서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이 관계자는 "김하균이 연기에 집중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며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늦장가'를 가는 김하균이 쑥스러운 마음에 지인들이나 절친한 연기자 몇몇에게만 결혼 사실을 알렸다"면서 "두 사람이 뒤늦게 만나 결혼하게 된 만큼 많은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와 아침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에 출연 중인 김하균은 드라마 촬영을 조율해 신혼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김하균은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선보인 감초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장가가지 못한 노총각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해 '노총각 전문' 배우로 불리기도 했다.

그동안 '성균관 스캔들' '비밀의 문' '대왕의 꿈' '대왕세종' 등 사극에 주로 출연했고, 지난해 화제를 모은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황정음이 믿고 따르는 직장상사로 출연해 사랑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김준수·하니 새해 첫 커플 탄생

■ 연예계 새해 희비교차

배우 하지원 부친 심장마비로 별세

2016년 신년 벽두, 연예계에도 기쁨과 슬픔, 기대감이 교차했다. 새해 첫 커플이 탄생했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새로운 다짐과 약속의 기대감이 위로했다.

가수 김준수와 그룹 EXID의 하니가 새해 첫 날 교제 중임을 고백했다. 지난해 6월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아온 이들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1일 파파라치 컷으로 공개되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털어놓았다. 이들의 소속사는 1일 "선후배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최근 연인의 만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우 하지원은 2일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고 말았다. 이날 심장마비로 아버지 전모씨가 별세하면서 하지원은 3일 오후 현재 동생인 연기자 전태수 등 가족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발인은 5일 오전이다.

영화 '내부자들:디 오리지널'이 12월31일 개봉한 뒤 4일 만인 3일 현재까지 85만여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영화는 지난해 11월 개봉한 2시간10분의 '내부자들'에 50분 분량을 덧붙여 새롭게 선보인 감독판. 이 같은 수치는 유례없는 것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작품으로서 새로운 흥행 기록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7년 1월 4일〉

드라마 '꿈의 궁전' 첫 방송



지난해 안방극장은 온통 '먹방'과 '쿡방'의 차지였다. 많은 요리사가 TV에 등장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전했다. 또 '맛 전문가'로서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발굴하며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경제불황의 여파 속에 가장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식욕의 배고픔을, 시청자는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며 달랬는지 모른다.

1997년 오늘은 그해 11월에 닥칠 IMF 외환위기의 징후조차 느끼지 못했던 때였다. 오히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린 날씨' 안에서도 대외경제 여건 등은 좋아질 것이다"는 전망이 나올 때였다.

그래서였을까. 현재의 '쿡방'과 '먹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되돌이킴을 가져다주는 드라마가 있다. 그해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주말극 '꿈의 궁전'(사진)이다.

드라마는 '꿈의 궁전'이라는 이름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김지호를 비롯해 김원희, 신인 이승우, 이순재, 이응경 등이 출연했다. '꿈의 궁전'은 이들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남녀의 사랑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펼쳤다.

극중 웨이트리스 역할을 맡은 김지호와 김원희 등은 드라마를 위해 서울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의 베테랑 웨이터로부터 요리 상식과 식당 매너 등을 배웠다. 레스토랑이 배경인 만큼 그 주방의 모습도 비추며 다양한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음식은 위 레스토랑의 조리장인 구본길씨가 직접 만들었다. 구씨는 대본을 미리 보며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을 줬다. 드라마 제작진은 연기자들에게 프랑스 요리에 관한 자료집 등을 배포해 연기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고아 출신의 밝고 착한 심성의 종업원(김지호)이 재력가임이 밝혀진 총지배인(이순재)의 도움으로 사랑을 얻는다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분위기를 큰 줄기 삼았다. 그 주역이었던 김지호는 1994년 가수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이후 보이시함 등 개성강한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1996년 연말 SBS 연기대상 인기상을 김원희와 함께 수상하기도 한 그는 신선한 이미지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모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마우스

●"복은 아무리 나눠도 줄지 않고 더 커진다"(걸스데이 혜리)

3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와 걸스데이 멤버들이 전한 신년 인사에서.

●"닭갈비를 쐈다."(방송인 김구라)

3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데뷔 22년 만에 2015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받고 한 턱 냈다면서.

●"삼둥이는 진짜 복덩이네."(누리꾼 tmdd****)

2일 KBS 2TV 대하드라마 '장영실'의 첫 방송과 주인공 송일국에 대한 호평의 기사 댓글에서.

